

한우 자조금 05

2010년 5월호 푸른달 마음이 푸른 모든이의 달

※ 푸른달은 5월의 순우리말입니다.

특집

지방선거 구제역 확산 초긴장 p.03

한우 생산·유통 안정화 대책 필요 p.10~11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어머니들 마음에 한우사랑 심는다 p.07



공계

공개 ▶▶ 쟁기질을 한 밭 위에서 흙덩이를 부수거나
고르는 데 쓴다. 방망이 굵기의 나무를 발치
럼 엮고 그 위에 사람이나 연장을 올려놓고
소가 끌어서 사용한다.

2010년 구제역 발생 상황



- ① 1월2일 : 경기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젓소 구제역 의심신고
- ② 1월7일 : 구제역 확진, 혈청형 'A' 형
- ③ 1월 13~30일 : 포천시 창수면, 일동면, 연천군, 청산면 5농가 추가 구제역 확진, 5,956마리 살처분
- ④ 3월 23일 : 농림수산식품부, 81일만에 구제역 종식 선언
- ⑤ 4월 8일 : 인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한우 구제역 의심신고
- ⑥ 4월 9일 : 구제역 확진 혈청형 'O' 형
- ⑦ 4월 10일 : 강화군 선원면, 불은면 4농가 추가 구제역 확진, 농식품부 위기경보를 '주의(Yellow)'에서 '경계(Orange)'로 격상
- ⑧ 4월 18일 : 강화군 2만9,677마리 살처분 완료
- ⑨ 4월 19일 : 경기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젓소 의심 신고, 강화군 선원면 한우농가에서 5.3Km 떨어진 경계지역(반경 3~10Km)에 해당
- ⑩ 4월 20일 : 월곶면 고양리 젓소 구제역 확진, 구제역 육지 상륙, 김포 194마리 살처분
- ⑪ 4월 21일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돼지 구제역 의심 신고
- ⑫ 4월 22일 : 신니면 용원리 구제역 확진, 강화군에서 136Km 떨어진, 20Km까지 설정된 방역당국의 방역망 벗어남, 농식품부 위기경보 최상위 수준인 '심각(Red)'으로 격상
- ⑬ 4월 27일 : 충주시 발생지역 반경 3Km내 가축 1만2,620마리 살처분
- ⑭ 4월 30일 : 충남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축산기술연구소 구제역 의심 신고
- ⑮ 5월 1일 : 청양군 축산기술연구소 모돈(어미돼지) 구제역 확진, 혈청형 'O' 형, 반경 500m이내 우제류 1,892마리와 연구소에서 종돈(種豚)을 분양받은 서산 돼지농가의 우제류 3,999마리 등 가축 5,891마리 살처분
- ⑯ 5월 6일 : 충남 청양군 목면 대평리 한우농가 의심 신고
- ⑰ 5월 7일 : 청양군 목면 대평리 한우농장 구제역 양성 판정,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동북쪽으로 3.2km 떨어진 곳에 위치, 혈청형 'O' 형, 발생농가 반경 500m 이내 우제류 102마리 살처분

아시아 곳곳이 구제역에 '몸살'

해외여행객 방역수칙 준수 · 각별한 관리 요구



올들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몽골, 대만 등 아시아 지역에 구제역이 대발생하고 있어 국경검역은 물론 해외여행객들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아시아 지역에서 구제역이 대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초에는 주로 A형이던 구제역 바이러스 형태가 4월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일본, 몽골 모두 O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된 아시아 지역 구제역 발생국은 북경, 신장성, 광둥성, 간수성, 산시성, 전시성 등 중국과 태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일본 등 현재까지 35개국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은 4월 20일 일본 미야자키현 소재 소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의심축이 23일 구제역으로 확정된 후 5월 18일까지 11만4,177마리가 살처분 대상이 됐다. 아울러 일본 농림수산성은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구제역 가축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이나 홍콩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몽골 수석수의관도 5월 5일 OIE에 몽골동부의 도르노드 지역의 소, 염소, 낙타 및 양을 사육하는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통보했다. 이번 몽골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2010년도 첫 발생으로 최근 우리나라, 일본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O형인 것으로 보고됐다.

방역당국 '선거바람'에 구제역 확산될라 초긴장

선거유세·투표 등 인구 이동 빈번...바이러스 확산 예방 총력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운동과 투표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어 방역당국과 축산농가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투표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제역 방역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도록 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관계자 등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더욱 더 많아지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방역 활동이 소홀해져 추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번에 방역 대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할 일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존에 해오던 소독과 관찰 외에 추가적인 대책을 지방선거일인 6월 2일까지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가축수송차, 사료차와 집유차, 수의사와 인공수정사들의 차량에 대해 소독이 더욱 강화된다. 구제역 종식선언까지 시·도를 벗어나는 영업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전국의 우제류 축산농장이 매일 소독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공동방제단을 통한 소독도 주 2회 이상 실시 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통제초소에서 사람을 내리게 한 뒤 차량의 외부는 물론 내부와 사람도 철저히 소독하도록 지시했다.

시민들은 불편을 겪게 되겠지만 구제역의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도축장이나 사료공장, 집유장 입구에는 전신 소독기를 설치해야 한다. 관공서나 병원, 은행, 종교시설 등 입구에도 발판소독조와 개인용 손소독기 등을 설치하며 광장, 장터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와 유세 차량 등에 방역관련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했다.

선관위의 할 일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전이나 한 뒤에 신발이나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장에 발판소독조와 개인용 손 소독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농가의 할 일

지방 선거 기간 동안 경조사, 유세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며 공항·만에서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고 입국한다. 또한 모든 농가는 6월2일까지 매일 지속적으로 농장, 출입차량 및 탑승자, 사료 등을 소독하며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한다.

후보자의 할 일

후보자는 차량내부와 손, 신발을 소독하며 사무실 입구에도 발판소독기와 손소독기를 설치해야 한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위험지역)에서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유세차량의 진입이 아예 차단된다.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하면 통보!!

축산농가가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나라나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입국하자마자 공항의 검역관에게 신고해 소독을 하고 주의사항을 듣도록 하는 시스템을 5월 10일부터 가동중이다.

만약 축산농가가 구제역 지역을 여행하고도 공항이나 항구에서 검역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나오게 되면 이런 사실을 그 농장주가 사는 지자체에 알려서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또 구제역 발생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뒤 그 농장에서 구제역이 생기면 살처분을 할 때 주는 보상금을 크게 줄일 계획이다.

구제역 발생지역 한우농가가 말한다

실질적 보상기준 마련 시급

구제역 철벽차단 예방책 강화해야

◎ 이강수 한우협회 청양지부장

더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일 있어선 안돼

5월 6일 청양 구제역 발생은 초기대응이 미흡해 발생했다. 초기 대응을 확실히 했다면 구제역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구제역 발생 후 청양군은 소독약을 무료 배포해 각 농가는 매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했고,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 현재 구제역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구제역 발생 당시 발생지 반경 10km가 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축장이 도축을 기피해 출하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이번 구제역 사태를 겪으며 정부의 소독부문의 보조금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길 바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발생 후 소독에 급급하지 말고 발생 전 미리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평상시 소독보조금을 지원해 농가들이 소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수동소독의 방법으로는 1일 1회 소독도 힘들어 하는 농가가 많아 소독을 소홀히 할 수 있으니 차후 자동소독장비를 지원해 농가들이 어렵지 않게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란다.



◎ 안태웅 포천 대의원, 한우협회 포천 지부장

농가 피부에 와 닿는 보상방안 절실

올 1월에 발생한 포천 구제역은 국내 겨울 발생사례로 처음이었다. 재빨리 소독기자재를 설치해 운영했으나 추운 날씨로 인해 금방 얼어버려 운영하기 힘들었고 갑자기 많은 양의 석회석을 구하기 어려웠다. 지금은 향후 겨울철 재발 가능성을 염두해 열선이 있는 소독통을 신청농가에게 지원했다. 비단 포천의 일만은 아니다. 전국 각지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초기대응이 원활하도록 석회석 및 소독약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포천 구제역은 1월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처분 보상이 다 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보상이 되려면 세분화된 기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러한 기준안이 없다. 정부는 살처분 농가의 보상방안으로 시가대로 보상한다고는 했지만 농가의 특성상 번식우, 비육우 등 각 사육단계별 세부적 보상안이 필요하다. 현재 포천의 각 축산농가 대표들이 모여서 자체 보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의 견해차이를 줄이고 농가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최대한 보상해주길 바란다.

포천은 축산농가가 많은 편으로 지자체 지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02년 공무원과 농가가 함께 해외축산농가를 견학했을 당시 출입소독기와 자동소독기 등을 보았다. 이 후 한 농가가 자동소독장비 지급을 건의해 포천시는 매년 소독장비를 100대 이상 지급, 현재 대다수 농가에 설치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구제역 방역에 힘 쏟고 있다. 또한 소규모 농장은 공동방제단을 구성,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소독활동을 하고 있다.

구제역 비발생지역 한우농가가 말한다

방역단 24시간 풀가동, 원활한 소독활동 전개 해외 입국자 전원 빈틈없는 소독 필요

● 김남배 관리위원, 한우협회 전남도지회장

농가 자율소독 소독 만전 기해야

현재 전남도는 각 시군별 주요 이동길목을 차단해 방역을 실시, 근무자는 8시간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며 구제역 예방에 힘쓰고 있다. 농가소독의 경우 1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자체적으로 공동방제단을 구성, 2일마다 1회씩 소독을 실시하며 향후 매주 수요일마다 소독할 예정이다. 100두 이상의 대규모 농가는 자체 소독을 하고 있다. 하지만 10~100두 사이의 중간규모 농가들의 경우 소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예찰 및 소독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소독에 대한 농가교육이 활성화 되어 농가의 의식이 철저해져야 구제역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정호영 관리위원, 한우협회 경남도지회장

지역 내 도축장 사용 협조요청

그동안 경남도축장에서 충청지역 소들의 도축이 이뤄졌었다. 하지만 청양 구제역 발생 후 소들의 이동제한이 중요해지면서 경남지역 한우농가들의 반발을 우려해 충청도의 경남도축장 이용농가에게 구제역 종식까지 반입자제를 요청하고, 도축장내 홍보를 시행해 충청도 한우농가들의 동의를 얻고 지금은 지역내의 소만 도축이 이뤄지고 있다. 구제역에 대한 농가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

신종플루 유행 시 이동인원에 전체 소독을 시행했으나 현재 구제역은 차량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구제역 방역은 소나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 소독도 중요하다. 현재 정부는 차량 내 사람도 소독을 시행한다고 했으나 원활한 소독은 되고 있지 않다. 비록 구제역이 소강상태에 있지만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 박승술 관리위원, 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

입국 시 모든 사람에 소독 실시해야

정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의 원인을 해외여행을 통한 유입으로 규정, 재발 방지책으로 농가가 해외여행 후 공항·만에서 신고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축산농가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제도를 100% 활용하려면 농가뿐 아니라 모든 입국자를 소독해 구제역 발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소독을 하지 않은 해외여행자가 축산농가의 이웃이거나 농가를 방문할 경우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편 살처분보상 체계도 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재확립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자금회전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무시한 채 자체 기준으로 평가, 보상하려고 있다. 살처분 농가는 다시 입식해서 출하할 때까지 비육은 2년, 번식은 4~5년이 걸린다. 번식우의 경우 종축생산을 목적으로 자체 개량을 한것에 대한 분명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보상체계를 개선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KBS2 월화드라마 **부자의 탄생**



4회 우병도(성지루)는 극 중 꽃등심 매니아로서 꽃등심에 집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5회 석봉(지현우)과 신미(이보영)은 목걸이를 찾다가 행방을 알고 있는 우병도를 만나 꽃등심을 사주며 화유한다.



6회 석봉의 몸보신을 위해 강우의 어머니는 한우갈비를 마련해 석봉에게 먹인다.



7회 석봉의 옥탑방에서 우병도는 꽃등심을 구우며 배고픈 석봉에게 건넨다.



11회 신미와 회사직원은 한우 전문점에서 화식을 하며 에피소드가 벌어진다.



15회 강우네 집에서 병도는 꽃등심을 구우며 맛있게 먹는다.



16회 한우전문점에서 김집사, 윤비서, 우병도와 그의 아들은 고기를 구우며 제대로 굽는 방법을 알려준다.



17회 태희(이시영)가 김스를 푼 후 뼈에 좋다며 사골국을 끓여주는 윤석(남궁민)



SBS **생방송 투데이**



5.14 오후 6:10분경 방송
보양식 한우라는 컨셉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아빠, 가사일에 지친 엄마, 성장기 어린이에게 맞는 보양식을 한우부위와 연결시켜 소개



MBC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5.16 오전 7:20

한우농장 방문 전 차량소독과 축사 소독, 농장의 청결한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여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한 한우농가의 노력을 조명하면서 한우농가가 직접 운영하는 직거래판 매장을 소개



어머니들 마음에 한우사랑 심는다

축산물 위생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비자 결의대회 지원



전국주부교실은 2010년 축산물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비자 결의대회를 4월 21일 서울교육문화

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232개 지부의 주부교실 회원 1,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우의 품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과 소비자 정보제공 활동 등 다양한 협력사업에 대한 참여활성화 결의를 다졌다. 결의대회 후 주제강연을 열어 농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노수현과장이 '축산물 정책방향'에 대해 홍혜걸 의학전문기자가 '의사가 알려주지 않는 건강이야기'를 전함으로서 참신한 주부들의 공감을 얻었다.

전국 언론기자 화합의 장, 한우와 함께 뛴다

한국기자협회 축구대회 지원, 37개 언론사 참여



에 한우를 지원했다.

한우자조금은 한우의 소비촉진을 도모하고 이미지 제고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제 38회 한국기자협회 축구대회'

지난 8일, 9일, 15일 3일간 고양시에서 진행한 이번 축구대회는 37개 언론사가 참가하는 국내최대 기자들의 잔치다.

이번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KBS팀 전원에게 한우고리세트를 제공하고 준우승팀인 SBS에게는 한우육포, 개인타이틀 수상자에게는 한우 선물세트를 증정했다. 뿐만 아니라 응원하러온 가족, 동료팀 모두에게 자축의 의미로 한우육포와 한우버거 시식권을 제공했다.

세계가 반한 '한우의 참맛'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한우요리 쿠킹클래스 큰 호응 얻어



2010년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 일산 킨텍스(한국국제전시장)에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개최했다. 12일 한식연구가 김수진 원장은 한식쿠킹클래스를 진행하며 외국인들과 함께 한우오절판을 만들며 한우의 참맛을 홍보했다.



저지방 부위 활용이 키 포인트

한우전문점 경영개선 컨설팅 교육, 열띤 호응 속 진행돼



4월 22일 한우전문점 경영개선 컨설팅 교육이 한우전문점 업주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남논현1문화센터에서 실시했다. 김태경 청미원 마케팅이사는 ‘전국의 대박 한우전문점 성공요소 분석’이라는 주제로 “한우 저지방 부위는 구이메뉴로 사용하는 부위에 비해 공

급가격이 저렴한 강점이 있으므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저지방부위의 활용도가 한우전문점의 성공포인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수진 푸드&컬처 대표는 ‘한우전문점 비교우위 경쟁력 확보’라는 제목으로 “어떠한 음식이라도 모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소비자 선호도가 급격히 변화한다. 음식의 응용화, 즉 스타일링을 해야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박중현 전라도음식문화연구원 대표는 한우 저지방부위를 이용한 메뉴 개발 비법을 공개했고, 유성호 장뚜가리 대표 및 송상호 한국유머연구소 소장이 강의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전국한우협회 한우판매 인증점

우노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26 2층
- 전 화 02-508-7073
- 대표자 이상민

- | | | |
|-----------------------|-----------------------|-------------------------|
| • 한우꽃등심(150g) 41,000원 | • 한우갈비살(150g) 34,000원 | • 우노한우모듬스페셜(3인) 75,000원 |
| • 한우안창살(150g) 41,000원 | • 한우육회(한접시) 30,000원 | |
| • 한우생등심(150g) 35,000원 | • 육수불고기, 국수전골 11,000원 | (생등심+갈비살+치돌볶이) |

서울 선릉역 부근에 인접해 있는 한우 판매인증점 우노는 옛날에 먹었던 시골 암소의 맛과 정갈한 상차림으로 인근지역 직장인들의 사랑을 받는다. 경기도 광주와 전남 나주의 한우직영목장을 통해 한우 암소를 직접 거래하며 하루 판매량만 준비해 판매하므로 신선도가 매우 뛰어나다.

원산지 표시제 메뉴판 지원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전문음식점에게 원산지 표시제를 홍보하는 메뉴판을 제작해 보급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과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마련한 이 사업은 신청서를 접수받아 방문, 심사를 거친 후 6월 30일까지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관리의 중요성



이 상 무 교수
경북대학교 축산학과
한우연구회 이사

소의 행동을 잘 이해하고 이를 관리자가 이용한다면 관리가 용이하며, 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1일 생산량이 증가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필자는 항상 한우농가 교육을 할 때는 소를 소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으로 생각하라고 강조한다. 먼저 한우도 사람처럼 좋아하는 맛이 있다. 소는 단맛을 매우 좋아한다. 따라서 당밀이나 설탕을 이용하면 식욕을 높여주고, 사료의 맛을 좋게 할 수 있다. 농후사료가 남아서 먹지 않을 때 사료 위에 설탕물을 분무기로 살짝 살포해 주면 기호성이 향상되어 잔량을 섭취한다. 그러나 사람들도 사탕이나 설탕을 많이 먹으면 밥맛이 없듯이 사료에 농도가 진한 당을 뿌려서 급여하면 사료의 맛은 개선되나 섭취 후 체내 당 농도가 높아져 채식량이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당밀 처리나 설탕 처리의 농도가 높으면 채식량 감소로 증체 및 고급육 생산에 문제가 발생한다.

한우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밥상(사료조)높이는 축사바닥보다 약 20cm 정도 높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일반 농가에서는 가끔 벧짚의 허실 및 먹이통에 흙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료조(조사료)를 높게 만들어 소가 고개를 높이 쳐들고 조사료를 빼어 먹게 하고 있다. 우리들 밥상이 자기 키보다 높다면 밥 먹기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한우 역시 밥상이 높으면 채식행동 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살찐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일반적으로 밥은 많이 먹고, 행동은 느리고 잠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한우 비육후기에 있어서 휴식행동과 증체량과의 관계를 보면 휴식 비율이 높을수록 일당 증체량이 높게 나타난다. 관리자는 비육 시 한우가 안정되게 휴식행동을 할 수 있도록 축사 환경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휴식시간 증가를 위한 축사 환경 개선방안으로는 축사 바닥 건조, 송풍기를 이용한 적정 환기 및 체감온도 유지, 휴식시간에 외부로부터의 소음차단 및 관리자의 무분별한 축사 배회를 자제하여야 한다.

이어서 투쟁행동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한우도 송아지 때는 사회적 서열, 먹이 쟁탈, 영역 구축 등으로 성숙보다 투쟁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 따라서 밀사로부터 오는 투쟁은 우리 내에서 폭식하여 과비된 소, 먹지 못하여 야윈 소 등 많은 문제가 있다. 투쟁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후 1주일에 제각하고, 생후 4~6개월에 거세를 하여 투쟁 행동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이다. 최근 투쟁행동을 최소화하고, 소의 상호간 친화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에서는 각 우리에 2두씩 배치하여 사육한다. 2두씩 배치하면 상호 친화력 및 먹이 투쟁행동 등 기타 투쟁행동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한우의 학습 행동을 생각해 보자. 소의 체중을 측정 할 때는 저울의 양문을 열어 두고 저울판 위에 약간의 한우의 배설물을 뿌려 둔 후 우군 뒤에서 천을 펼쳐 서서히 저울 쪽으로 몰아가면 소들이 가볍게 저울을 통과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3~4회 자연스럽게 저울을 통과시키면 소는 저울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는 앞문을 닫고 뒷문만 열어두면 자연스럽게 소가 저울에 올라간다. 이때 체중을 자연스럽게 측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한우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저감되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양으로 관리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한우 생산 · 유통 안정화 대책 필요

유통자문회의 실시...“구이용 부위 적체 · 소비위축 심화”

올해 한우산업은 경기침체와 구제역 여파로 인해 지난해 대비 소비량이 저하된 가운데 주요 구이부위인 등심, 안심, 채끝살 등 구이용이 적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제역때문에 출하를 미뤄왔던 농가들이 한번에 출하를 할 경우 한우 가격 및 유통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으로는 한우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경기침체와 수입육 증가, 공급과잉 등 악조건으로 인해 한우가격의 연착륙이 불가피 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 따른 소비축진 홍보 및 수급안정 조치가 절실하다. 이에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는 5월 12일 한우유통 전문가를 초빙해 하반기 한우수급과 가격동향에 대해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편집자주>

토론자 = 황엽 한우자조금사무국장, 김영원 한우협회 부장, 김동일 농식품부 주무관, 임종철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직거래팀장, 한수현 축산기업조합중앙회 전무, 박준우 농협유통 팀장, 윤병수 롯데마트 과장, 이호종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대리, 홍성진 이마트 대리, 박승희 다하뉴 본부장, 박영만 중도매인회 회장, 전상곤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덕용 화우명가 대표

Q1. 소비위축으로 인해 판매가 부진하다고 하는데 그 원인과 소비위축 정도는?

전상곤(농경연) 한우의 1등급 이상 출현률이 높아져 한우의 평균가격이 상승한 반면 한우판매는 감소했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 이력제 시행한 2008, 2009년도에는 한우 수요가 상당히 증가했지만 현재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둔감해졌다. 한우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유지하도록 후속조치 또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윤병수(롯데마트) 지난해 신종플루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다. 올해는 구제역으로 인해 돼지, 한우가 모두 20% 가량 감소, 축산물 전체 매출은 10% 떨어졌다.

정덕용(화우명가) 한우전문점의 매출저하는 4월말부터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고 50%까지 매출이 떨어진 곳도 있다. 소비자들이 구제역에 대해 잘 모르지만 막연히 안 먹는 것 같다. 광우병 촛불파동 때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호종(홈플러스) 등심, 안심, 채끝 등 구이용 부위의 적체는 작년 말부터 조짐이 보였고 1월부터 재고가 쌓였다. 정상 판매가 되지 않아 홍보행사를 통해 재고를 없애고 있다. 실질적 매출이 하락세로 가정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정체기를 보이고 있다. 매출대비 매장의 방문 객수가 현격히 줄어 한우가격 상승과 구제역 영향이 공동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박영만(중도매인회) 마장동 및 소규모 업체는 작년 9월부터 판매율이 줄어들고 있다. 졸업, 입학식 등으로 성수기를

맞아야 할 3월도 판매율이 저하됐다. 재고가 갈수록 많아져 냉동보관하며, 학교급식이나 군납으로 겨우 납품하고 있다.

임종철(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판매저하로 인해 농협유통 인천사업소에는 냉동재고가 늘어나며 특히 등심, 안심, 채끝 등구이용이 적체된다. 냉장육은 45일 내에 판매가 되지 않으면 냉동된다.

Q2. 현재 한우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수현(축산기업조합중앙회) 한우가격이 비싼 것보다는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인식하는 것이 문제다. 정육점형 식당이 값싸게 한우를 먹을 수 있도록 기여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세금문제, 가격인상 등으로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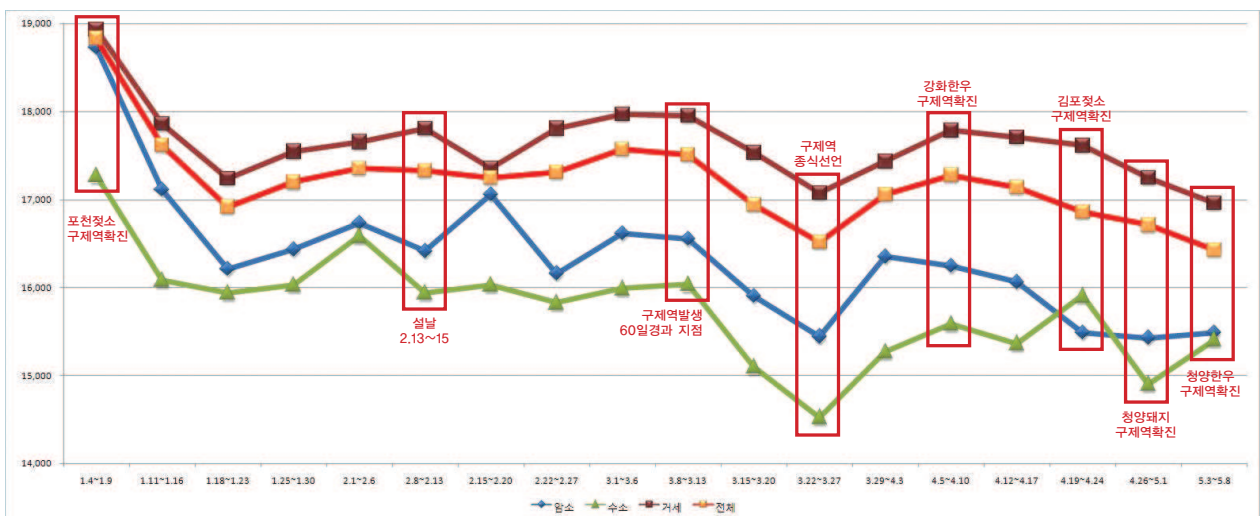
박승희(다하뉴) 현재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이전의 박리다매식 판매로 유지했으나 판매량이 줄면서 이윤이 줄어 가격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30개월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5백만원 정도의 순 생산비가 발생된다. 밑소가격, 사료값 등이 떨어지지 않는 한 지금의 소비자가격이 떨어지기 어렵다. 향후 걱정되는 사안은 언론보도이다. 현재 적체되어 있는 냉동재고가 시중에 풀려 유통업자들이 냉장육으로 판매한다면 한우고기에 대한 단점이 더욱 부각돼 파장이 될 수 있다.

Q3. 수입육 매출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윤병수(롯데마트) 앞으로 수입육으로 인한 한우소비 위축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 본다. 현재 중국, 러시아의 쇠고기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호주, 미국산 쇠고기가 상

■ 한우평균가격 및 도축두수 추이

구분	1월1주	1월2주	1월3주	1월4주	2월1주	2월2주	2월3주	2월4주	3월1주	3월2주	3월3주	3월4주	3월5주	4월1주	4월2주	4월3주	4월4주	5월1주
	1.4~1.9	1.11~1.16	1.18~1.23	1.25~1.30	2.1~2.6	2.8~2.13	2.15~2.20	2.22~2.27	3.1~3.6	3.8~3.13	3.15~3.20	3.22~3.27	3.29~4.3	4.5~4.10	4.12~4.17	4.19~4.24	4.26~5.1	5.3~5.8
암소	18,726	17,113	16,211	16,431	16,732	16,412	17,058	16,159	16,615	16,552	15,904	15,441	16,351	16,245	16,060	15,487	15,427	15,488
	1,195	1,895	1,928	1,985	2,344	1,732	185	1,134	788	1,298	1,544	1,274	1,044	1,301	1,398	1,335	1,335	1,395
수소	17,272	16,083	15,940	16,029	16,585	15,940	16,030	15,826	15,988	16,037	15,099	14,526	15,272	15,589	15,364	15,908	14,904	15,410
	135	181	153	192	310	205	24	104	73	104	189	126	82	96	124	81	107	122
거세	18,930	17,862	17,239	17,543	17,651	17,806	17,351	17,805	17,970	17,952	17,532	17,076	17,432	17,785	17,708	17,612	17,249	16,959
	2,764	3,930	3,602	3,963	4,489	2,998	526	2,155	1,673	2,472	2,515	2,199	1,882	2,311	2,365	2,004	2,733	2,094
전체	18,829	17,614	16,916	17,197	17,355	17,330	17,246	17,310	17,568	17,506	16,937	16,518	17,057	17,277	17,137	16,861	16,710	16,424
	4,094	6,006	5,683	6,140	7,143	4,935	735	3,393	2,534	3,874	4,248	3,599	3,008	3,708	3,887	3,420	4,175	3,611



당량 중국, 러시아로 납품된다. 이로 인해 미·호주산 쇠고기의 국제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올 해 수입육 가격이 상승해 가격할인을 작년처럼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수입육 유통이력시스템이 소비자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 같다.

Q4. 현재 많이 적체되어 있는 등심, 안심, 채끝살의 소비를 위한 홍보는 무엇이 필요한가?

홍성진(이마트) 올해 들어 미국과 호주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실시해 한우 또한 지속적이고 공격적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다.

임종철(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최근 군납기간이 1년계약에서 분기단위로 변경되어 수입육이 군납에 들어온다면 한우 소비량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한수현(축산기업조합중앙회) 소비자들의 구이문화도 변했다. 기존 등심, 안심, 채끝살 위주가 안창, 살치살 등의 특수부위로 변했으며 웰빙의 여파로 더 이상 지방(마블링)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홍성진(이마트) 냉동육이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

이 필요하다. 현재 산지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추석 대기 물량이 많아 가격이 조정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고, 벌써 부산물 처리를 걱정하고 있다.

Q5. 현재 한우 소비홍보를 위한 전국적인 이벤트는 어떻게 보는가?

이호종(홈플러스) 한시적인 홍보 및 행사는 업체간 경쟁을 유발할 뿐 한우 소비량은 정해져 있어 판매량을 높이기 힘들다.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박승희(다하누) 행사품목을 원가보다 싸게 판매해도 소비자는 비싸다고 생각한다. TV PPL 등을 통한 한우의 이미지 개선, 한우의 품질과 맛의 우월성을 소비자에게 어필해 한우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김영원(전국한우협회) 자조금 및 협회는 한우의 소비 촉진과 가격안정을 위해 대규모 소비촉진을 상반기에도 한 차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최근 구제역으로 소비가 주춤하고 하반기 출하량 증가를 감안할 때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홍보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통업계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

농진청, 배란동기화기술 개발...번식경영비 40% 절감

농촌진흥청은 농가의 편의에 맞게 연중 송아지생산 일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배란동기화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을 소 사육 농가에서 적용할 경우 송아지 생산을 효과적으로 증대시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농가가 원하는 달에 소를 분만시킬 수 있어 삶의 질 향상도 가능하다. 국내 한우송아지 출생은 3~5월에 전체 송아지 생산량의 33%를 차지하는 29만2,000두로 가장 많이 태어나고 정액공급량은 6~8월에 전체 정액 생산량의 33.5%인 71만3,000str 정도로 많이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계절적으로 여름철엔 불임이 많이 이 시기에 인공수정을 하면 수태율이 떨어지고 9월에나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 5월에 태어난 소들을 대상으로 5, 6월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배란동기화 기술을 적용하면 수태시기를 앞당기고 분만간격을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번식경영비를 40% 가량 절감시킬 수 있다.

사료용 옥수수 재배가 벼보다 수익성 우수

■ 2009년도 쌀 생산비 통계자료 참고

(단위: 톤, 천원)

쌀 수급 불균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지금 눈에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해 쌀 생산량 조절과 동시에 사료용 곡물 수입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작물명	수량	단가 (kg/원)	금액	정부지원 (천원/ha)	조수입	생산비	소득
벼	5.3	1,781	9,440		9,440	6,240	3,200
옥수수	60	160	9,600	3,000	12,600	7,532	5,068
총체벼	44	135	5,940	3,000	8,940	5,317	3,623

최근 쌀 생산조절을 위해 눈에 벼를 대신해 콩, 옥수수 등 대체작물을 재배하면 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정책이 발표되면서 사료용 옥수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사료용 옥수수 재배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농진청은 눈에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할 경우 벼농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눈에 옥수수 재배 시 ha당 60톤을 생산하면, kg당 160원으로 환산해 조수입이 96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정부보조금 300만원을 합하면 ha당 1천26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정도 수준이면 벼농사 못지않은 수준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 빠짐이 좋은 곳이어야 한다는 것과 큰 비나 장마철 눈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하며, 품종선정과 진압, 수확적기 준수 등 기본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옥수수는 대표적인 사료작물로 현재 국내에서는 해외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작물이다. 눈에서 사료용 옥수수의 재배가 활성화 된다면 축산업 경쟁력 향상과 동시에 쌀 수급불균형 문제해결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진흥청의 설명이다.

한우정책 Q&A (브루셀라 방역대책)

추진 배경	2013년 브루셀라병 근절을 목표로 단계별 방역지표를 설정, 강도 높은 방역대책 추진 ※ 단계별 방역지표 : ('09)감염률 0.5% 이하→('11)감염률 0.25%이하→('13)청정화 및 근절
추진 내용	- 모든 사육 중인 한육우 1세 이상 암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검사 실시 - 거래하는 모든 소(거세우 제외)는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 수집상·중개상 비육 소는 연 4회 이상 정기검사 실시 - 살처분 보상금 감액지급 : ('07.4)시가의 60%→('08.7) 80% - 한우협회 등 생산자 단체와 협력, 예방수칙 교육·홍보 등
문제점	브루셀라병 조기 근절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색출검사 실시 및 농가 예방수칙 교육·홍보 강화 필요
참고 사이트	www.nvrqs.go.kr(가축방역→소브루셀라병)



청소년 한우 맛체험

- ① 경남 마산·제일고 | 4월 7일
- ②③ 부산·성지고 | 4월 9일
- ④⑤ 경남 김해·분성중 | 4월 13일



현장실습교육

- ⑥⑦ 영광·4월 9일

6월의 할 일

일반관리

일반적으로 소의 사육적온은 송아지 13~25℃, 육성우 4~20℃, 비육우 10~20℃, 번식우 0~20℃이며, 습도는 60~70%이다. 따라서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축사바닥을 건조하게 해주고, 환기는 물론 체열발산을 촉진시키는 등 소에게 적당한 온·습도 및 환기관리로 쾌적한 축사환경을 제공하여 질병발생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사양관리

무더위로 인하여 음수량이 늘어나므로 항상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급수기와 사료통을 자주 청소해 준다. 고온에서는 소의 식욕이 감퇴되므로 조사료는 가능한 한 양질의 조사료를 짧게 잘라 헛수를 늘려 급여하고, 농후사료는 급여비율을 높여주고 아침, 저녁 선선했을 때에 급여한다. 번식우는 조사로 위주로 사육하고, 송아지의 생체중이 평균(24kg 내외)보다 낮은 경우에는 조기번식여부 및 어미소의 영양상태 등의 적정성을 검토, 개선한다. 비육우는 비육후기에 농후사료의 섭취량을 극대화하여 출하체중을 높이고 육질을 개선하도록 한다.

방역 및 위생관리

어린 송아지가 소화기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송아지사에서 가두어 키우고, 깔짚을 자주 갈아주고 환기를 시키는 등 환경관리에 힘쓴다. 또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기 위하여 송아지설사병 및 호흡기질병 예방백신을 접종한다. 병원체의 활동이 왕성한 때로 목장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고, 축사내외도 정기적으로 소독약을 뿌려 병원체의 침입을 막는 등 방역에도 힘쓴다.

※ 일사병, 열사병 대책

– 일사병,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는 소는 즉시 그늘로 옮기고 머리에 냉수를 끼얹는다. 강심제, 생리적 식염수와 포도당액(5%)을 주사한다.

초지 및 사료포관리

이달은 건초를 만들기에 적합한 때로 장마가 시작되는 하순경 이전에 목초를 베어 건초를 제조하여 잘 보관하고, 반드시 초장이 짧은 상태에서 장마에 들어가도록 장마기 이전에 2번초를 수확한다. 멸강충이 발생하는지 잘 예찰하고 발생 즉시 약제를 살포하여 방제한다.

봄에 파종한 연맥, 유채의 수확을 끝내고 장마가 오기 전에 수단그라스 등을 파종한다. 5월 초에 파종한 수단그라스는 청산중독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초장이 1.5m 이상 되었을 때 베어 먹인다. 장마철에 대비하여 사료포에 배수로를 잘 판다. 옥수수에 발생하는 호마고염병, 흑조위축병 발생에 대비한다.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표지이야기

공계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을 편편하게 고르고 흙을 부수뜨리는 데 쓰는 농기구로서 씨앗을 뿌린 뒤에 흙이 씨앗을 덮을 수 있도록 사용한다. 또한 어린 소를 길들일 때도 이것이 이용되기도 하는데, 무겁고 긴 각목(角木) 양쪽에 나무 자루를 박고 여기에 끈을 매어 소가 끌기도 하고, 2줄을 맨 가마니에 돌이나 뿔장을 싣거나 또는 아이들을 그 위에 태워 소가 끌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굽직한 통나무 양끝에 줄을 매거나 썰레를 뒤집어 놓고 사용할 수도 있다.



애독자 코너

정부는 해외여행으로 인한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추후 예방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구제역 발생국을 방문한 농가는 입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신고를 하고 소독 및 주의사항을 듣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농가는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입국하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번 자조금 소식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4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고상훈(경기 남양주시), 김상설(경남 거창군), 이금자(울산 울주군), 임희천(제주 한림읍), 이해란(경북 영주시), 박효희(경남 창원군)

전국 한우像 순례 ⑭

청도 소싸움대회 한우상 작품 '충돌'

각 국가의 도자기는 그 민족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 중의 하나다. 특히 웅기는 거친 듯 투박한 형태와 색으로 우리의 민족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저장기인 웅기의 파편들이 다시 결합되어 황소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힘찬 발걸음을 떼는 소의 모습을 통해 시련에 맞서 힘차게 봉기하는 우리 민족의 기상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6.2 지방선거때도 구제역 방역,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 축산농가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 지방선거 기간동안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경조사, 유세장 등)의 출입자제
- 농장 출입자에 대한 소독 및 통제를 강화하고 6월 2일(수)까지 매일 소독
- 구제역 발생국가를 다녀오신 축산농가는 공항만의 검역관에게 신고

◎ 축산관계자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 구제역 종식선언까지 축산관계자(도축장, 사료회사, 수의사 등) 분들은 시·도를 벗어난 영업 자제
- 농장출입 차량(가축수송, 사료차량 등)의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실시.
- 도축장, 사료공장, 집유장 입구에는 발판 소독조와 운전자용 전신소독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 공공기관 입구에도 발판 소독조와 개인용 손소독기를 설치.